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는 누구나 피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개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담배를 즐길 권리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담배를) 즐길 권리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에)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교양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옆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상식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에서 읽은것이지만 담배는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사람이 더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특히 전차(전철) 안에서 라든가 역,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것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필수 없겠죠. 바람등이 부는 날에는 앞의 사람이 담배를 피면 연기 뿐만 아니라 그 재까지 날라오므로 아주 곤란합니다. 자신은 별 뜻 없이 피우고 버릴 생각이었겠지만 뒤에서 걷고있던 사람에게 담배(의) 궂초가 닿아서 옷을 버리게 되는 일도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히) 정해진 장소에서 즐기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담배 선전 방송은 저는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때문에 방송 할 수 없도록 한다는것은 좀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못하게 하는 방법 보다는 다른 캠페인을 한다거나 해서 자신 스스로 담배가 나쁘다는것을 이해해서 알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라도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어디서나 누구나 살수 있기때문에 어린이들까지 피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피우지마! 피지마!」 하면 오히려 피고 싶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전방송을 금지시키는것 보다 더욱 긍정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나쁘다는것을 알리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매너를 잘 지켜 좋은 본보기가 되는것이 아이들이 자라서 담배를 피게되도 그것을 배워 모두가 즐겁게 살수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될수 있지 않을까요).